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5. 3.(월) 16:00(총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박경희 전문관 한경훈
		전화번호	064-727-0367

제주도 4일 ~ 5일

강하고 많은 비, 매우 강한 바람, 해상 높은 물결

- (4일 오후~5일 새벽) 산지와 남동부 중심 강하고 매우 많은 비
- (4일 오후~5일 아침) 돌풍과 함께 매우 강한 바람
- (4일 오후~5일 오후) 해상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



[4일 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]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권오웅)은 **내일(4일)오후~5일(수) 새벽** 사이에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산지와 남·동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, 해상에도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,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제주지방기상청은 **4일 오후부터 5일 새벽까지** 중국 상해부근에서 북동진하여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.
-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본 동쪽해상에는 고기압, 서쪽해상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기압차가 차차 커지고, 이로 인해 매우 강한 남풍이 불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.

[강수 전망]

- 4일 아침부터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**오후(13시)에** 비가 시작되어 어린이날인 **5일(수) 새벽(05시)까지**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.
-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전면에서 매우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, **4일(화) 늦은 오후(15시)~밤(24시)** 사이에 산지와 남·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**30mm**이상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, 반면에 북부해안지역은 10~40mm의 적은 양이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남쪽과 북쪽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 보았다.

- 따라서,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예상되고 계곡이나 하천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,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(4일 오후(13시) ~ 5일 새벽(05시)까지) >

- 제주도산지 : 100~200mm(많은 곳 250mm 이상)
- 제주도(북부해안, 산지 제외) : 30~80mm(많은 곳 남부, 동부 150mm 이상)
- 제주도북부해안 : 10~40mm

- 이번 강수의 불확실성은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과 바람의 세기에 변동 가능성도 있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한편, 5일 새벽에 비가 그친 후, 아침까지는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남풍이 점차 강해져 4일(화) 낮부터 5일(수)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(시속 35~60km, 초속 10~16m)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특히, 4일 밤(18~24시)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이상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, 5일 아침(09시)까지도 강한 바람이

예상되므로 어린이날 야외행사 및 선별진료소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점검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- 또한, 항공기와 해상 선박교통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“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- (풍랑) 해상에서도 차차 강한 바람으로 인해 4일(화) 낮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어 5일 오전까지 (제주도남쪽면바다 밤)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
- 특히, 4일(화) 오후~5일(수) 오전에는 35~65km(초속 10~18m)의 매우 강한 바람과 2~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, 돌풍과 천둥.번개가 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- 이에 따라, 정박중인 소형 선박간의 충돌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,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, 갯바위를 넘는 곳도 있겠다며, 시설물 관리와 해양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.